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가브리엘 대천사

사순절 제3주일 / 십자가 경배 주일

성 갈리니키 순교자

- 조과에서 ‘찬양되시는 주여’는 부르지 않는다.
- 대영광송 후 ‘십자가 경배 주일 의식’을 거행한다.

제7조, 조과복음 7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B 288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삼성송 대신 ‘주여, 주의 십자가에’ / 230. B 292
- 사도경: 히브리 4,14-5,6 / 230. 봉독서 451
- 복음경: 마르코 8,34-9,1 / 139. B 96
- 성모송(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B 288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가브리엘 대천사 연관 축일

우리 교회에서는 3월 26일을 가브리엘 대천사 연관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전령이 되어 세상에 기쁨이 되는 큰 소식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져왔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느님의 영적 일꾼인 전령으로, 예언자 다니엘에게,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예언자 즈가리아에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로, 물질 세상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천사들

의 일에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히브리서 1:14)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의 일은 이러한 임무 외에도 먼저는, 우리가 성찬예배에서 듣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늘과 땅이 영광으로 가득하니 높은 하늘에서 호산나,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하늘에서 호산나.”라고 하느님께 찬미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균에 대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토론의 관심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당연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학적인 세균 외에도 우리 가운데에는 항상 영적 세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욕망이, 어떠한 욕망이라도, 생물학적 세균에도 있듯이 적든, 크든 위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죽음을 줄 수 있는 세균 중의 하나가 증오(시기, 미움)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서서히 퍼지는 세균으로 더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증오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보일 때 이 증오의 세균이 자신과 상대방을 죽인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어려워 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하느님께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 용

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마태오 6:12)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해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다른 이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다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증오의 세균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어떤 위험한 세균보다도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세균은 우리를 병들어 눕게 하거나, 아주 안 좋은 경우 생물학적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증오의 세균은 우리를 확실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증오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사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 “자기가 빛 속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둠에 가리워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요한 1서 2:9~11)

18 3면으로 계속

흘러 넘치기

“오렌지를 짜면 무엇을 얻게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곧, 오렌지 주스다!

몇 년 전 한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 대답은 ‘오렌지 주스’가 아니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이 되었든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 자신이 귀어짜이거나 압력을 받으면 그 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비통함이나 쓰라림이든, 또는 증오나 혐오이든 우리 자신이 압박을 받으면 그것이 밖으로 흘러 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적들에게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다. 곧,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루가 23:34)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거칠게 밀치거나 때릴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칠 것이다. 또 만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무신다면, 삶이 여러분을 귀어잡을 때 성령의 열매들이 밖으로 흘러 넘칠 것이다. 곧,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 같은 것들 말이다.(갈라디아 5:22-23)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우리 교회는 대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증오의 세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행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과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만과를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와 문제가 있는 형제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원

수까지도, “진심으로”(마태오 18:35) 사랑한다면, 대사순절의 영적 투쟁에서 영적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와 사랑으로 대사순절을 인내로 잘 보내십시오.

✝ 암브로시오스 한국대주교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3월 25일(수) 축일을 맞이하는 부산 성모희보 성당 축일을 축하하면서,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과 모든 신자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증보로 충만한 은혜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세계총대주교청 공지문

세계총대주교청의 거룩한 공의회는 의장이신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주재하에 다른 여러 의제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해 사목적 책임감으로 광범위하게 논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 1)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신중함과 인내심, 모임의 회피 등이 조연된다.
- 2) 우리 교회는 의학에 대한 존경을 보여 왔고 계속해서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에 대한 공식 지침과 해당 국가가 발표한 권고 및 법률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3) 세계총대주교청은 이 새로운 전염병을 치료하고, 치료하기 위해 건강, 의료, 간호 및 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4)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회는 2천 년 여정의 경험을 통해 성체성혈성사가 ‘죽음의 해독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성찬식에 관한 정교 가르침에 확고히 남아 있다.
- 5) 기도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인간의 논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투쟁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의 어머니 교회는 전 세계의 영적인 자녀들이 기도를 강화하여, 하느님의 지지와 깨달음으로 지금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20년 3월 11일, 거룩한 공의회의 서기관으로부터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이번 주 수요일 **3월 25일은 성모 희보 축일**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없고, 오전에 축일 성찬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25일(수) 성모 희보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 3월 27일(금) 오후 6시 : 성모기립 찬양(제4스타시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